

# 정부 · 기관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 구제역 및 AI 등 국내 유입 방지 활동 강화 추석연휴 대비(9.17~25), 전국 주요 공·항만 국경검역 일제점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금번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6개 점검반을 구성, 17개 주요 국제공항과 무역항에서의 국경검역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추절 및 국경절(9.30~10.7) 연휴 등으로 해외여행객의 국내방문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아울러,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소독 및 방역교육, 여행자 휴대품 검색활동 등 국경검역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9.17~9.25(9일간), 6개 점검반 가동하여 전국 17개 공·항만 일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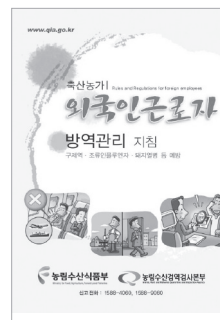
최근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멕시코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발생국가로부터 가축전염

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HPAI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출입국시 공·항만 소재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 17개국 언어로 제작·배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관리지침과 가금 농가에서 꼭 지켜야 할 소독 및 차단방역요령 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축산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단계별 사항을 베트남 등 17개국 언어로 알기 쉽게 표현한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을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시·도 및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하였는데, 제작 언어는 다음과 같다.

\* 제작 언어(17개국) :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카자흐스탄어, 네팔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또 철새 이동에 따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우리나라 유입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농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기하도록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방역』 홍보 전단지 및 휴대용을 5만부 제작하여 관련기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 1일 1회 이상 사육가금 관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의 소독 및 차단방역 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12년 구제역 및 HPAI 특별방역대책 기간('12.10.1~'13.5.31), 철새 도래시기 및 귀성객 등 농장 출입자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농가에서 소독 및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촌진흥청

### 벗짚수거 후 가축분뇨로 유기물 보충 유기물 적으면 수량 줄고 병해충도 많아져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가을철 벗짚수거 후 논에 가축분뇨를 뿌려 유기물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논에서 벗짚을 수거하고 유기물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유기물과 규산 함량이 12%씩 줄어 토양이 단단해져 물리성이 나빠지고 뿌리 발육이 저해되며 병해충 발생도 많아진다. 그러나 벗짚을 수거한 논에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를 3:7 비율로 뿌려주면 화학비료 대비 유기물 17%, 유효인산 11%, 토양공극률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퇴·액비 시용량은 사료작물 종류나 벼농사의 사용기준과 토양의 지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모두 벼농사와 사료작물 재배에 투여할 경우 화학비료를 100% 대체하고도 남는 양으로 질소 27%, 인산 139%, 칼리181% 과잉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임영철 연구관은 “한우나 젖소 등 반추가축은 조사료와 곡류사료를 6:4 정도의 비율로 급여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나라는 양질 조사료가 부족해 벗짚 의존도 총 조사료 소요량 중 42%에 해당하는 225만 7천 톤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며, “따라서 벗짚을 수거한 후 반드시 가축분뇨 퇴·액비를 뿌려 유기물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국내 연구진, 에티오피아에 ‘우리 축산기술’ 보급

“선진화된 축산 기술 보급으로 에티오피아 아이들  
이 우유를 맘껏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명식(53) 박사를 비  
롯한 국내 연구진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  
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  
사업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를 찾아 아프리카 축  
산전문가들에게 한국형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돌아  
왔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우리나라 한우격인 에티오피아  
‘보란’종을 개량하기 위해 우수한 정액을 생산·보  
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인공수정사 기술 수준이  
낮아 수태율이 50~60%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박사는 “2년 자란 한우가 450kg 정도라면 개량  
능력 부족과 사료문제로 보란은 고작 250~300kg  
밖에 안된다”며 “소가 8천500만두나 있지만, 서민  
은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  
하다”고 말했다.

우리 연구진은 에티오피아 대학교수, 수단의 인공  
수정센터장, 튀니지의 인공수정사 등 한국형 축산  
기술을 배우러 온 아프리카 관계자들 앞에서 한국  
형 자가인공수정기를 이용한 인공수정기술을 선보  
였다.

기존 인공수정기는 인공수정사 손의 감각에 의존  
했다면, 한국형 자가인공수정기는 정액의 주입 상  
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교육은 ‘젖소개량’이

었다. 에티오피아는 젖소 개량 능력이 떨어져 우유  
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연구진이  
전수한 한국형 젖소 정액과 수정란 이식 기술은 아  
프리카의 우량 젖소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를 모았다.

이 박사는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은 유독 우유·고  
기를 좋아하지만, 젖소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4배  
가량 비싼데다 우유량은 5분의 1에 불과해 먹기 어  
려운 실정”이라며 “KAFACI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국격을 높이고 아프리카 기아 해방과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KAFACI는 지난 2010년 7월 출범했으며 전  
체 인구의 40% 이상이 절대빈곤에 처한 아프리카  
에 농업기술의 전수, 만성적인 기아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다.

경인일보 윤수경 기자 2012. 09. 10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약청, 추석맞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가위를 맞이  
하여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  
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요령 및 주  
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

1. 제품 주표시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동충하초, 마늘류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판매되고 있는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안정성 및 기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2.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3.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지의 기능성분 및 기능성 표시를 확인하여 구매 목적에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
4.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 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정성 및 기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 섭취 시 주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기능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인삼·홍삼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녹차추출물은 카페인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

타낼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복용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에 정식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일보 김승희 기자 2012. 09. 20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롯데마트  
‘등급 계란 소비촉진 행사’ 공동 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등급 계란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7일, 8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진행되었으며, 등급란 코너를 방문해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과 등급 계란 구매 후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에게 해당 코너에서 등급 계란 증정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행사 당일 계란의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아 보는 이벤트에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며 등급계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신선한 계란의 경우 노른자가 탄력이 있고 탱글탱글하며 이쑤시개를 꽂아도 터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개 꽂히지 않고 노른자가 터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에 참가한 주부 김은혜(29) 씨는 “요리할 때 껍질을 깨자마자 노른자가 터지고 흰자가 주르르 흐르는 계란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이쑤시개가 꽂아질 정도로 탱탱한 것을 보니 신기하다”며, “신선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앞으로는 꼭 등급을 확인하고 계란을 구매 해야겠다”고 전했다.

계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이른바 ‘국민반찬’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판매되는 다양한 종류의 계란 품질의 명확한 차이를 몰라 구입 시 어떤 계란이 좋은 계란인지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매겨진 품질 등급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주는 ‘계란등급제’를 2001년부터 시행 중이며, 앞으로 등급란의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를 통한 소비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구입한 등급계란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에서 계란의 껍질에 표시된 정보를 입력하면 등급판정일자, 생산자정보, 집하장정보 등의 생산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2012. 09. 10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 작업장 · 사료공장 시상식 개최

축산물 위생 · 안전 관리 “우리가 최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지난 9월 19일 ‘12년 축산물HACCP 운용 우수작업장 · 사료공장’으로 선정된 19개 업체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축산물HACCP운용 우수작업장 · 사료공장 선정사업은 축산물HACCP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축산물HACCP 운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기준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 작업장을 선정,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기준원은 지난해 24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어 올해 총 19개 업체를 우수작업장 및 사료공장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우수작업장 및 사료공장으로 선정된 이후 내 · 외적으로 위생적이라는 이미지 상승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 증가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선정된 작업장 및 사료공장은 ‘11년 조사 · 평가 및 최근 2~3년간의 정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 | 정부 및 기관소식 |

학계·소비자단체·축산관련연구원 등 축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과 외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13개 업종·축종, 총 19개 업체)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우수 작업장 및 사료공장의 HACCP운용 우수 사례집을 제작,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HACCP지정 업체 등에 배포하여 현장의 HACCP적용 및 운영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규담 원장은 이 시상식 자리를 통해 축산물 HACCP운용 우수작업장·사료공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축산물 HACCP 운용현황을 타 업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HACCP운용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길 바란다”면서 “축산물위생 및 안전이라는 핵심가치가 실현되도록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준원은 축산물HACCP 우수 운용 사례의 지속적 발굴을 통한 축산물HACCP 확산 및 국내 축산물 위생·안전성 향상에 기여코자 매년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2012년 축산물HACCP 운용 우수작업장 및 사료공장 명단

△가축사육단계(한우) : 봉이농장, 석하농장, 대림농장 △가축사육단계(젓소) : 쟁골목장 △가축사육단계(양돈) : 우포월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민진농장 △가축사육단계(산란계) : 농업회사법인 조인(주)충주농장 △가축사육단계(육계) : 무항농장 △가축사육단계(오리) : 현승오리농장 △알가공업 : (주)피디에이 △배합사료공장 : 서부사료(주), (주)농협사료 울산지사 △유가공업 : 서울우유협동조합 거창공장, (주)한국야쿠르트 천안공장 △축산

물운반업 : 코리아푸드 △식육가공업 :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식육판매업 : (주)천지농산 △집유업 :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남양유업(주)천안 신공장

축산신문 2012.09.24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aT, ‘2012 행복나눔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농어촌 중심의 다양한 봉사활동 노력 인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9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2012 제3회 행복나눔인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했다. ‘행복나눔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는 단체 및 개인을 발굴,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분기별로 선정·시상하고 있다. aT는 기업 특성에 맞는 농어촌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aT는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aT 사랑나눔단’을 구성하여 농어촌다문화가정 친정외가방문 지원, 농어촌 미래인재 육성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전사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김재수 aT 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그동안 기관의 특색에 맞게 농어촌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온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

서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T는 사회공헌활동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KT, 분당서울대 병원, 경기도시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으로 연대협의체(UCC; Union Corporate Committee)를 구성해 각 회원사의 장점을 결합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책임 선도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축산농가 경영 정상화에 발 벗고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9월 6일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악화된 경영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축산물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막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무이자자금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 위주로 수입되던 사료곡물을 남미·인도 등의 지역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타피

오카 가공장을 오는 2016년까지 완료하고 농장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러시아 연해주 등에 진출해 곡물 수급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협 자체자금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해 축산상품의 감축과 소비 촉진행사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생산량 조절을 위해 한우 암소와 돼지, 닭 등 가축 100만 마리를 감축한다. 농협중앙회는 142개의 일선 축협과 함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석맞이 한우고기 선물세트 판매·한우 부산물(사골 등) 증정행사·돼지고기 저지방부위 할인판매행사 등 축산물 할인판매 및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농협은 다음 달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인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심포지엄 개최하고 소비자를 초청해 축산현장을 돌아보는 행사를 가져 축산농가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예정이다.

뉴스스 박기주 기자 2012. 09. 06

